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글 깨친 힘으로 산업·민주화 이뤄”

文 대통령, 한글날 SNS 메시지 광화문서 ‘한글날경축식’ 열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관계자들이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과 관련해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고 국민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다”며 우리글의 힘으로 산업민주화를 이뤄냈음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글이 대한민국이며 한글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며 “간도·연해주·중앙아시아·하와이를 비롯해 우리 민족이 새로 터를 잡은 곳에서는 어디든지 학교부터 세워 한글을 가르쳤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전세계 180개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뜨겁다”며 “국경을 넘는 한류의 밑바탕에 한글이 있었다. 우리말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했다”고 한글·독립운동의 상관관계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같은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573년 전 오늘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한글을 만들어 퍼내 줬다”며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 겨레에게 열어줬다. 세종대왕의 뜻은 이뤄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매우 높은 문자해독률과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한글과 뜨거운 교육열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계속해서 “세계에는 약 3000개 민족이 7000개 언어를 쓰며 산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쓰는 글자는 28개만 남았다. 그중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확실한 글자는 한글뿐”이라며 우리말의 위대함을 부각시켰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정부, 유엔총회서 韓 수출통제 우수성 홍보

日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알리

정부가 유엔 총회를 무대로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계기로 삼아 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대행사는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앞서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문제로 삼은 바 있다.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

EPS)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형 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제도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형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손가락으로 농작물 환경 확인·제어 자연·체력한계 극복 ‘똑똑한 농부’

100세 시대 5060 신중년이 된다  
직업탐색 가이드

## 4 귀농귀촌플래너·스마트팜운영자

베이비부머 세대 64% 귀농 생각 성공적 정착되는 멘토역할 중요

### ◆귀농 귀촌플래너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64%가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4년 귀농 귀촌가구는 4만4586가구로 전년대비 37.5%가 증가했다. 그러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귀농귀촌에 실패해 도시로 재이주하는 역귀농, 역귀촌 비율도 8.3%에 달한다.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역, 주변 여건, 소득 창출을 위한 작물재배와 판매·유통 등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멘토가 바로 귀농·귀촌 플래너이다.

관련 교육과정은 주로 귀농·귀촌에 대한 과정이 많은 편이다. 주로 지역 귀농·귀촌지원 센터나 사립 아카데미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 귀촌 교육이 가장 도움이 되고, 상담 및 컨설팅 기법 교육을 더해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다.

천안연암대학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코디네이터 교육을 필두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주도로 귀농귀촌코디네이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단순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은 2014년 신설된 귀농귀촌종합센터 관리 아래 민간기관 공모교육도 실시 중이다.

이선행 서울귀농아카데미 원장은 “귀농귀촌플래너는 농촌 지역에 대한 지식과 농업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귀농 귀촌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사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 자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스마트팜운영자(스마트파머)

‘손가락 하나로 농사를 짓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역시 손안의 똑똑한 기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능한 세상이 됐다. 바로 스마트팜 운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플래너와는 또 다른 직업, 바로 스마트팜 운영자다.

실제 세종시에는 2014년 말 창조마을 시범사업장 ‘스마트팜(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이 100개 이상 설치됐다. 스마트파머는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닐하우스를 수시로 오가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온도 확인과 제어를 하며 농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팜은 농사짓기에 노후가 없지만 귀농을 원하는 베이비부머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부도 자연 앞에, 그리고 체력적 한계 앞에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스마트팜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팜은 농사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지능화된 농장 또는 그제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가 가능하고,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해 시범 농장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고 스마트팜 설치비용이 상당하므로, 농촌진흥청 등의 협력을 통해 운영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진입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손현경 기자 son89@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읍 관동 도로에서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차량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편의점 5곳 중 1곳 적자·저매출 시달려

편의점 5개 중 1개가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국내 주요 3사(CU·GS25·세븐일레븐)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매출 150만원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3만 3068개 중 47.8%에 달하는 1만 5819개에 달했다.

이 중 영업이익이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구간’으로 불리는 일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도 전체 20%에 해당했다. 총 6646개 점포다. 국내 편의점 3사의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매출 100만~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일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 폭이 더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는 전체의 6.7%인 2228개로 집계됐다. 희망폐업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 의원실 설명이다.

경영 악화 상태는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석대성 기자

## 경기북부 ASF 발생지 완충지대 설정

농식품부, 남하 방지 집중관리

정부가 3일 이후 6일간 추가 확진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고자 기존 발생지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

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조치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능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발견하고자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인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석대성 기자